

##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김지연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n Expression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Jee-Yeon Kim and K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ression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This study has three parts. They are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luralism, to find the fashion environments of pluralism in terms of politics, economics, sociality, culture, science, and art, and to analyze expression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The concept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is the diversity and compounds of fashion images. The environments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are multinational economic system, virtual world of internet, mass-culture and post-modern art. And expression of pluralism in contemporary fashion is analyzed into publicity. Publicity is expressed by using things of common lifestyle and the past that people used to and are well-known. Horizontality is expressed by coordination of male-female facts and property-poorness without high or low concept. Multi-nation is expressed by mixing various kind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Virtuality is expressed by layering and collaging complex facts that are not connected each other.

**Key words :** pluralism, expression, public, horizontal, multi-nation, virtual

### 1.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뿐 아니라 현실과 가상세계 조차 모호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현대인들의 지적, 심리적 욕구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그 경계를 넘어 서로 융합되는 다원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존 워커(John Walker)는 이러한 현상을 모더니즘이후의 사회·문화적 특징 중 하나인 다원주의로 언급하고 있다(John, 1997). 이는 궁극적인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 즉, 모든 영역이 독자성을 지향하기보다 상호침투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양식들의 혼재를 통한 다감각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에 나타나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연령이나 인종 그리고 현실과 가상(cyber)세계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들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패션산업에서도 상품과 소비자간의 인터랙티브

(Interactive)개념이 도입되고 개인의 취향이 더욱 존중됨으로써 하나의 패션상품에 현대인들의 다양한 감성을 혼재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임영자 · 한윤숙, 2001).

이와같이 패션에 대한 현대 소비자들의 욕구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현대패션의 특징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현대의 중심적 문화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패션현상들을 연구하고 있으며,(김주영·양숙희, 2001; 박명희, 1999; 정현숙·정홍숙, 1997)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체적인 특징인 해체와 절충(김주영·양숙희, 1998; 양희영·양숙희, 2000), 불확정성(이정후·양숙희, 1999)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와 점점 다양해지는 혼합된 양식들을 다문화주의(이민선, 2001), 퓨전과 하이브리드(임영자·하윤숙, 2001)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의 여러가지 관점들 중 다원주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 특징으로써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현대패션의 다양화와 복잡화 경향을 이해하기에 적절할 것이며, 특히 현대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다양한 양식의 혼합으로 표현되는 특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식들의 혼재로 표현되는 현대패션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원주의의 개념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의 패션환경으로서의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패션 사진을 수집하여 다원주의적 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다원주의의 개념과 패션환경에 관한 고찰을 위해 서적과 선행연구, 신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도자료와 예술적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다원주의적 표현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2000 F/W-2003 S/S 시즌의 Collection, Book Moda, Collezioni 등의 패션 전문지에서 ‘다중의, 혼합된’과 같이 다원주의적 표현을 설명하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사진을 수집하여 사례분석 하였다.

## 2.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

### 2.1. 다원주의의 본질

영국의 포스트모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Zygmund Bauman)에 의하면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의 하나이며 문화, 사상, 삶의 양식 등의 전반에 나타나는 항구적이며 축소될 수 없는 사상이라고 하였다(Bauman, 1992).

포스트모더니즘 안에서의 다원주의는 가치의 다양화가 허용되고 다양한 변이가 공존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통의 정이나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찾기 위해 애쓴다(이봉덕·양숙희, 2001). 그러나 다원주의에서 인식의 공유나 새로운 의미창조가 반드시 구성원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항상 절충의 대상이 된다(Bogdan & Bilden, 1992). 즉, 절대적인 가치체계를 고수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존 워커(John Walker)는 모더니즘 이후의 사회문화적인 특징중의 하나로 다원주의를 언급하였다(John, 1997). 이러한 다원화 현상은 불안정과 혼동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변화하는 인간의 욕망에 따라 다원적인 요소들 다양한 스타일과 이념, 문화와 계층, 지역과 민족들 간의 수평적인 조절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김영옥·김인숙, 2000).

따라서 다원주의는 궁극적인 가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통적 체계를 파괴하고 혼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임영자·하윤숙, 2001). 예를 들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것이나 제3세계의 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기존의 가치가 붕괴되며 상실되고 억압 받아온 주변적인 것들이 수평적 관계의 세력을 획득한 다원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이 수용되며 모든 영역이 혼합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예술세계, 1992).

베일리(Bailey)는 다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각 주제 또는 개인의 개성과 자율 그리고 자유의 분해와 융합이라고 하였다(Bailey, 1999). 이러한 개념은 2000년에 열린 코엑스(COEX)에서 표방한 ‘어울림’의 개념과도 유사한데 어울림은 자연환경과 사람과 기술 사이의 조화를 말하며 동서남북간의 조화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조화를 포괄한다.

한편,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인 들뢰즈(Deleuze)는 자연의 산물들은 다양성과 생산의 원리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다양성의 생산이라는 원리는 각각의 고유한 요소들을 하나의 일관된 전체 안에 넣을 수 없으며 그를 총체할 하나의 조합 속에서 통합될 수도 없는 다양성 속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원주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이정우, 1999).

따라서 다원주의는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통일적 원칙에 의한 구성에서 벗어나, 시대적·양식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술작품에 있어서도 여러 요소나 양식이 여러 작품에 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에서 서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오희숙, <http://www.umak.co.kr/gong/nonmun/heels-postm.htm>).

햇산(Hassan)은 다원주의의 특성이 첫째, 다양한 요소들의 개방과 해체, 반항과 변용 그리고 다원성 등이 절충적, 혼합적 경향으로 표현됨으로써 나타나는 의미의 모호성 또는 다의성을 의미하는 불확정성을 먼저 지적하였다.

둘째로 단편화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은유가 중요시되어 연속적 상관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고립되고 불연속적인 물질적 기표들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갖게 하는 정신분열적인 시대를 나타낸다. 셋째로 모더니즘 시대의 엘리트주의가 표방한 고급예술, 고상한 취향, 고전주의와 같은 독자적이며 통일적인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전통적 권위가 붕괴되고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인위적 형식구분이 배제되는 현상인 탈경전화이다.

넷째는 재현 불가능성으로 장르의식이 붕괴되고 혼합되며 역사적 전통형식에 대한 복고현상과 함께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모조 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섯째는 대중주의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고 다원주의 인간정신을 지닌 대중매체 예술이 발달하게 된다. 여섯째는 행위와 참여이다. 예술행위는 대중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상업성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하게 된다. 일곱 번째는 보편내재성으로 예술과 일상생활의 차이가 사라지면서 건축이나 디자인 등에서 예술적 언어를 찾게 된다(Hassan, 1987).

따라서 다원주의는 절충적 경향에 의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중에게 익숙한 것들을 혼합시켜 규칙성을 깬 재조합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새로움”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움은 그 동안 주변적인 것으로 시선을 끌지 못하고 무시되거나 도외시 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됨을 의미한다.

절충은 다원주의가 팽배해진 현대에 그 특징이 더욱 부각되

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이질적인 다원적 요소들이 그 성격이나 특징이 변모되는 양상과 혼합된 요소들이 특유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면서 혼재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은 절충의 양상은 새로운 내용과 이미지로 변화하게 하고 그 의미파악에 있어서 불확정적인 모호함을 부여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의 대상이 그 속에 절충된 다원적 요소들의 이미지와 특성들에 의해 이를 인식하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에 따라 각각의 요소가 부각되거나 약화되고 또 융합되어 다양한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정성을 말한다. 따라서 일관된 현실보다는 혼합되고 이질적인 현상을 포용하고 불확정적이며 모호한 다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에서 다원주의의 미학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심적 개념인 다원주의는 의형적으로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 표현방식으로는 절충적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객체는 그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불확정성을 가진다.

## 2.2.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의 배경

코너(Connor)는 대중 문화에 대한 포스트모더니론 중에서 가장 그 특징이 두드러지고 대표적인 분야가 패션이라고 파악한다(Conner, 1995). 패션은 영원성의 미학 속에서 변화와 새로움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일시성과 재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문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Calinescu, 1987).

패션에서는 다원주의적 경향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강해져 The Face지는 80년대의 빠른 스타일의 교체를 지적하며 “오늘날의 패션은 ‘look’도 아니며 ‘style’도 아닌 무질서로 빠져들어 혼돈상태이며 마치 정신병원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다양한 욕구와 요구가 창출되어 패션상품의 질적인 추구하고 용도의 다양화, 개성화가 요구되면서 스트리트 패션을 주도하던 핑크의 요소들이 하이패션에 도입되는 시기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다원주의적 경향은 1990년대에는 여러 아이템과 소재의 절충과 같은 믹스드 스타일(mixed style)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현상이 더욱 세분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이 한계가 보이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것은 복식의 다원성은 다른 사람의 복식 문화권에 관심을 두게 된 ‘탈 중심화’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복식이 ‘자유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민자, 1998).

이러한 패션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바로 패션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대인들의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의 배경을 정치·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다원주의적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패션의 다원주의적 표현에 영향을 미친 정치·경제적

패션환경은 제3세계의 등장과 다국적 경제구조로의 변화이다.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각국의 이윤추구의 원리가 더 크게 작용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이념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 이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교류는 다국적 미디어와 다국적 상품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즉, 문화의 세계화에 따라, 문화의 국경 개념도 현저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며, 후기자본주의의 상품생산과 소비의 논리를 그 자체로서 복제하고 또한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급속한 세계화는 탈중심적 현상으로 다문화주의나 후기식민주의로 그 관심을 돌리게 했고 문화의 이동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접촉에 대한 열린 태도는 타문화의 인식과 수용으로 연결되어 자국의 문화와 혼합됨으로써 새롭고 독특한 다양성을 도출하고 있다.

현대패션에 있어서 후기 자본주의시대의 다국적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를 위해 가속적으로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소비와 계획적인 폐기에 의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유행과 함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경계없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과학과 기술분야에서의 환경변화로써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가 하나의 가상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폭발적인 확산을 이룬 인터넷은 가상 공간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인간은 고정된 가치체계에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다양한 문화양식들은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 가치, 성의 구별 등과 같은 자연발생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은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우리 또는 타자 내부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즉 모순적인 것들의 병존이라는 아이러니 속에서 통일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이제 인간의 정체성을 보는 관점은 탈중심화되고 유동적이고 비단선적이며 불투명하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의 관점으로 전환된다(이민선, 2001).

따라서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한 사람의 라이프에 공존하여 미래에 대한 도전이 과거의 형수와 장소, 시간, 국가, 언어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사회·문화분야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이전의 소수 특권계층이 주도해 오던 중심적 문화가 다수의 대중 중심의 문화로 변화되고 확립되면서 대중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게 되었다. 이는 엘리트 의식이 팽배했던 시대와는 반대되는 자유로운 표현과 전문적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완화시켜 나타나는 부드러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즉, 다양한 전통의 자원을 활용하여, 대중의 감정적 공감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의 팽배는 계층이나 계급을 분리하기보다는 각 계

층들의 특징들을 하나의 개성적 표현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시각이미지, 디자인, 공예, 만화, 비디오 등 좀 더 일반이 공유하는 문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한 시대의 경험과 문화의 가치체계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주요한 문화연구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은 예술을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미적 경험을 동참할 수 있는 차원으로 다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순수예술과 상업예술의 벽이 사라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 인해 “표현성”, “주관성” 등의 측면이 새로이 주목받게되어 “일상생활의 미학화” 현상이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 와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엄격한 구분, 예술의 각 장르간의 폐쇄성이라는 모더니즘 문화의 사고방식은 스타일의 다원성의 존재 아래 다른 시대, 다른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혼합, 접목시키는 방식이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과 일상생활의 경계를 없애거나 고급예술과 대중문화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문화의 “깊이 없음”을 즐기며, 패러디, 이중부호, 아이러니, 유희성을 새롭게 검토하게 된 것이다. 그 영향으로 미술과 대중문화, 대중매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예술과 대중문화의 동일시,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의 위계적 관련이 없음을 환기시켜준다(<http://www.samsung.design.net>).

이상과 같은 다원주의의 배경은 현대패션을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어 가치와 무가치의 의미가 쉽게 바뀌고,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남녀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인체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기발한 것들의 나열을 통해 기존의 관념들을 재음미하여 절충하는 방법으로 다원주의적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 3.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 3.1. 대중적 표현

현대패션은 다수의 대중이 문화의 중심이 되어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다. 이는 대중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로움과 전문적 격식의 완화에 따른 부드러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현대 패션의 표현양상이 대중의 수용적 관점에서 특징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를 패션 이미지로써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전통의 자원을 이용하고, 대중과의 감정적 공감을 추구하는 것이 큰 경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과거의 친숙한 표현과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들의 인용으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아이러니를 강화시키는 패션 이미지의 표현성을 대중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적 표현은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과거의 양식에 변화를 주는 ‘패러디’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

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된다(장희숙, 1995).

이러한 대중적 표현은 대중문화 표현들의 아이টে과 소재가 과감하게 하이패션에 절충되면서 팝, 펑크 스타일 등의 스트리트 패션이 리믹스 스타일의 세련되고 조화를 이룬 디자인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기존의 하이패션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용품이 패션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즐거움과 유희를 제공하였다.

Fig. 1은 John Galiano의 작품으로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과거 19세기말의 여성의 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팝 아트적인 이미지를 혼합하고, 미래감각의 소재인 비닐과 그라피토키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 예술의 장르와 혼합함으로써 과거의 복고적 의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즐거움을 유발시킨다.

Fig. 2는 Moschino cheap & chic의 작품으로 복고적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의상에 줄자를 벨트로, 바늘과 골무, 단추 등의 재봉용구를 가슴부분에 코디네이트 시키고 있으며 크로와상 모양의 골드 백은 일상의 모습을 고급스럽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인간의 감성적 즐거움을 평범한 일상에서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적 표현은 엘리트적 전통에 대항하여 단정하고 세련되기보다는 촌스러움과 즐거움, 믹스 & 매치 감각의 표현이 두드러지며 레이어드된 스타일과 여유와 자유로운 스트리트적 감성으로 유행을 이끌고 있다. 이것은 캐주얼과 포멀한 착장법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양방향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Fig. 3은 Dior의 작품으로 스포티브와 펑크의 이미지를 혼합한 두건과 T셔츠, 가죽재킷에 부드럽고 비치는 시폰 소재의 스커트를 레이어드한 복합적인 스트리트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의 디자인 발상의 근원 중 대중적 표현은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감각과 함께 다원적 표현 중 특정한 시대나 연도에서 영감을 받거나, 일상생활의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이টে을 인용하고 재해석하여 나타난 스타일로 21세기 다원주의 패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 3.2. 수평적 표현

현대패션은 사회구조적 차원으로서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와 빈곤의 정체성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우월성의 개념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의 의미를 상실한 대신 더욱 새롭고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패션 이미지로써 수평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보다는 통합적 이미지로서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여 인간 자체로서의 의미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데 남성적 이미지에 여성적 이미지의 디테일이나 액세서리를 조합하거나 남성에게 여성적 취향의 표현을 부가함으로써 여성성과 남성성의 서로 상반된 스타일의 융합을 통해 의외적인 이미지와 미의식을 표출함으로써 다원주의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채금석, 1999).

1990년대 이후 다각도로 변화된 상호성의 이미지 혼합은 성



Fig. 1. BookModa 2001SS.



Fig. 2. BookModa 2002FW.



Fig. 3. B.Moda N.57.



Fig. 4. B.Moda 2001 SS.

의 양면가치를 제시하며 상식을 초월한 개성위주의 패션문화 형성을 주도하여 남녀 패션의 아이템과 메이크업을 혼용함으로써 여러가지 이미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Fig. 4는 Ungaro의 작품으로 전통적인 팬츠 수트와 중절모의 남성적 이미지와 허리에 커다란 꽃 코사지와 가방의 실버 패턴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혼합하여 남성의 사회적 이미지와 여성의 화려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Fig. 5는 Iceberg의 작품으로 육체미를 과시하고 감성적이며 화려한 남성의 이미지를 소프트한 니트와 화려하고 큰 꽃무늬 패턴의 자유로운 배열, 화려하고 에로틱한 수영복을 매치시켜 남성의 사회 속에서의 의무를 탈피하고 여성에게만 주어졌던 관능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또, 수평적 표현로서 계급을 상

징하던 부와 빈곤을 구분하던 디자인 코드는 이제 대중을 위한 개성표출의 수단으로써 고급스러움과 실용성, 새 것과 낡은 것의 이미지들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6은 Ungaro의 작품으로 귀족적인 컬러인 Violet의 벨벳 코트와 앞면에 금속줄로 엮은 장식 그리고 찢어지고 낡은 이미지의 얇은 소재로 동여맨 블루진의 조합은 빈부와 상관없이 개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Fig. 7은 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서로 다른 조직의 니트를 짜깁기한 듯한 느슨한 스웨터와 고급스러운 광택을 가진 드레스 스커트의 조합으로 소박한 고급스러움의 편안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와같이 현대패션에서의 수평성은 다원주의에 의해 계급과



Fig. 5. CollezioniUomo 2002 FW.



Fig. 6. BookModa N.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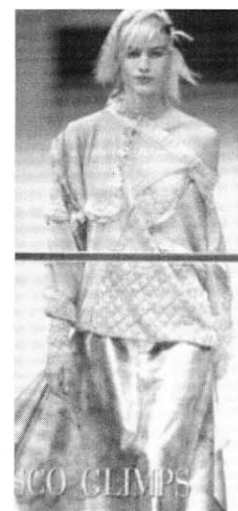


Fig. 7. BookModa N.57.

우월성을 표현하던 디자인 표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해 또 다른 새로운 복합적 이미지 창출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 3.3. 다국적 표현

현대패션은 각 나라의 문화체계를 고립시키지 않고 항상 다른 문화와 접촉관계를 유지하며 이에 따른 문화접촉과 이식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다원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탈중심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각 민족 특유의 민족복식 양식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신비감 그리고 순수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패션 이미지로써 다국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족복식을 현대패션에 절충하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에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의 소수 민족 스타일을 차용하거나 각 나라의 민족적 표현을 혼합시키고 있다. 즉, 민족적 모티브와 동양적 자수기법과 하이테크 소재를 결합시키거나 서로 다른 동서양의 민족고유 아이템의 병치와 황금색과 진주와 같은 동양적 컬러와 액세서리의 코디네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8은 John P. Gaultier의 작품으로 중국 전통의 치파오에 스페인의 투우사들의 블레로를 붉은 색의 가죽소재로 하여 중국의 실크소재와의 매치로써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Fig. 9는 John P. Gaultier작품으로 티베트의 라마승의 승복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컬러와 착장법에 느슨하고 비치는 소재의 지퍼업 점퍼 그리고 담배파이프를 코디시킴으로써 동양의 조용하고 신비한 이미지와 서양의 대표적인 캐주얼 아이템이 공존하고 있다.

Fig. 10 또한 John P. Gaultier의 작품으로 외의로 착용하는 중국의 전통의상을 드레스의 형식으로 변환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등의 동유럽의 이미지를 가진 모피모자와 코디네이션시켜

고급스러우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이 두 가지 이상의 각 국가의 민족적 표현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거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른 문화들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냄으로써 현대패션은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로 통합되는 가운데 각각 나라들의 특징들이 섞여 들어가는 카테일 효과를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

### 3.4. 가상적 표현

현대패션은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cyber) 세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다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이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전통적 가치, 성의 구별 등 자연법칙이 부과하던 제한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끝없는 욕망에 따라 나타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사이버 세계를 반영하는 패션 이미지를 가상적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이버 세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의 변형을 시도하고 신체와 결합하는 패션은 홀로그램 직물이나 테크노 감각의 색상과 소재, 문양을 사용하여 인간과 기계의 융합을 표현하는 이미지의 재구성으로 표현된다. 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상상력이 구체화되어 현실생활에 표현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문화는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문화양식들이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실제 세계와 끊임없이 교차하는 문화의 콜라주(collage)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의 패션에 반영되어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연관성 없는 이미지들로 동시에 나타나는 콜라주로 표현하고 있다.

Fig. 11은 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다양한 재질과 소재, 무늬의 결합이 의복의 구성부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바지의 양 가랑이가 다른 소재와 무늬로 나타나며 소매의 한쪽은



Fig. 8. BookModa 2001 FW.



Fig. 9. Collezioni N.90.



Fig. 10. Collezioni N.90 FW.

부드럽고 비치는 소재의 부풀린 소매이고, 한쪽은 모피로 된 소매로 서로 이질적인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과도한 장식목걸이와 한쪽 눈을 가리는 국적을 알 수 없는 모자의 결합은 가상세계의 가능성에서 발생된 것이라 하겠다.

Fig. 12는 Dior의 작품으로 시대를 짐작하기 어려운 나폴레옹의 의상과 유사한 19세기 장교복을 연상시키는 어깨견장이 있는 코트로 동양과 서양 동물과 식물 문양과 실크와 모피소재가 패치워크 형식으로 혼합되어 복잡하고 어지러운 느낌을 준다.

Fig. 13은 Seregin & Vasiliev의 작품으로 딱딱한 소재의 중국전통의상 이미지에 피에로가 그려진 미니원피스에 찢어진 진 셔츠를 hip부분에 감아서 걸쳐 묶고 동양풍의 특이한 형태의 헤어장식으로 코디네이션 시켜 새롭고 이상하며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이와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가상성은 다원주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끝없는 다양성 추구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 4. 요약 및 결론

현대패션은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에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연령이나 인종 그리고 현실과 가상(cyber)세계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들이 그 경계를 허물고 혼재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양상을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다원주의의 개념과 현대패션에 나타났던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패션사진 통하여 다양하게 혼합되어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를 다원주의적 표현을 분류하고 그 특성

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원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중심적 개념으로써 모든 영역이 절대적 가치체계를 지향하기보다 상호침투, 융합되는 수평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모든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이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절충적인 방법으로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그 요소들의 혼재는 그 의미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확정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다원주의가 현대패션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제3세계의 등장과 다국적 경제구조에 의한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교류촉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가상세계의 형성,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대중중심의 문화확립에 의한 대중의 다양한 욕구의 표출, 문화예술에 있어서 예술에 대한 개념이 미적경험을 동참할 수 있는 차원으로 변화한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을 분석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패션이미지를 대중적 표현, 수평적 표현, 다국적 표현, 가상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각 표현들의 특징으로는 대중적 표현은 다양한 전통의 자원을 이용하고, 대중과의 감정적 공감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과거의 친숙한 요소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들의 인용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 표현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와 빈곤의 디자인 코드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표현으로써 상대의 이미지를 디테일과 액세서리의 코디네이션에 의한 개성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국적 표현은 소수민족 스타일의 요소를 차용하거나 각 민족적 요소를 혼합하여 다원주의의 카테일 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가상적 표현은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여 사이버 세계에서만 가능한 끝없이 복잡하게 발생하는 욕구가 현실의 패션에도 반영되어 서로 계연성 없는 이미지들이 복잡하게 융



Fig. 11. BookModa N.56.



Fig. 12. BookModa N.59.



Fig. 13. BookModa N.59.

**Table 1.**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다원주의적 표현성	다원적 표현의 근원	표현양식	가치
대중적 표현	과거의 양식 일상생활	패러디 인용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대중이 추구하는 보편적 즐거움을 부여
수평적 표현	남성과 여성 부와 빈곤	아이템의 코디네이션 디테일, 액세서리 코디네이션	계급의 원리에서 벗어난 개성적 연출
다국적 표현	여러 국가의 민족적, 전통적 양식	아이템의 코디네이션 착용법의 변형 민속적 요소의 융합	다원주의의 카테일 효과
가상적 표현	계연성이 없는 대중적 이미지	레이어드 패치워크 부분의 합체	디자인 발상의 제한성 탈피

함되어 아이템들을 레이어드 하거나 패치워크 형식으로 나타났  
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은 시대를 반영하여 서로 다른 장르의  
다양한 이미지를 절충함으로써 다원주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표현은 가변적이고 새로우며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한 핵심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분류된 복합적 패션 이미지들을 그  
표현양식의 특성에 따라 더욱 구체화시키는 연구가 진행될 필  
요가 있을 것이며, 복합적 패션 이미지 개발을 통해 글로벌 패  
션디자인의 잠재력을 적극적인 상품화로 이어가는데 기초자  
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I)-반미학, 열린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 380.  
김영옥 · 김인숙 (2000) 현대복식에 나타난 양면감정. *복식*, 50(1)  
103.  
김주영 · 양숙희(1998)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  
(제2보)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1), 3-17.  
김주영 · 양숙희 (2001) 마돈나 의상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정체성. *복  
식*, 51(8), 123.  
박명희 (1999)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1980-90년대 미국 *Vogue*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지*, 3(1), 147-158.  
양희영 · 양숙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538-  
548.  
예술세계 (1992) “보를레르와 프랑스 문학 비평”. 1월, p.36.  
오희숙, 음악적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 <http://www.um-ak.co.kr>

/gong/nonmun/ hees-postm.htm  
이민선 (2001) 남성 패션에 표현된 다중문화. *복식*, 51(7), 21.  
이민선 (2001) 패션에 표현된 가상성. *한국의류학회지*, 25(3) 981-  
990.  
이봉덕 · 양숙희 (2001) 파코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  
연구*, 9(1), 141-153.  
이정우 (1999) “의미의 논리”. 한길사, 서울 pp.43-44.  
이정후 · 양숙희 (1999)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Indeterminacy). *복식*, 45, 179.  
임영자 · 한윤숙 (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복식*, 51(5), 113-134.  
장희숙 (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1990년  
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국 (1997) “대중매체 시대의 예술”. 열화당, 서울, p.104.  
정현숙 · 정홍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  
식*, 35, 231-252.  
채금석 (1999) 현대패션에 나타난 양성적 복식에 관한 연구-시대별  
대표적인 디자이너와 그 특성을 중심으로. *복식*, 44, 37-56.  
Bailey G.W.S. (1999) Postmodernism and pluralism in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art. East Carolina  
University, N.C, pp.2-3.  
Bogdan R.C. and Bilden S.K. (1992)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p.42.  
Calinescu M. (1987) Five facts of Modernity. Duke University Press,  
North Carolina, p.38.  
Hassan I. (1987) “The Postmodern Turn: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Columbus, pp.  
85-86.  
Conner S. (1995)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Ed. Meridiane, Bucuretti p.213.  
Bauman Z. (1992) “Intimations of Postmodernity”. Routledge,  
London, pp.74  
<http://www.samsung design.net>

(2003년 7월 16일 접수)